

광주 아파트 비율 79% 세종시 제외 전국 최고 수년내 공실 속출 불보듯

5년내 신규물량 5만여 가구
 심각한 도시문제 비화 우려
 주택정책 획기적 전환 필요

도시의 경제적·사회적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일보가 지난 6월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 오는 2022년까지 광주에는 4~5만가구에 이르는 신규 아파트가 시장으로 쏟아질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19곳에서 32000세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라 건립될 1만2000세대 등 최소 4만4000세대로, 광주시 역사와 유사한 전망치를 갖고 있다.

우선 거론되는 문제는 새 아파트 솔림(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다.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건설사가 입지 좋은 곳에 짓는 신축 아파트로 모든 게 쏠리고, 도심 외곽의 낡은 아파트에는 공실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라 전망이다.

인구가 줄어도 경쟁력 있는 신축아파트는 분양가와 집값이 유지되고, 현 아파트는 집값이 하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악의 경우 집을 팔기도, 재건축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부 아파트 단지와 주변 마을은 슬럼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아파트만 지을 게 아니라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이 건설되도록 광주시가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40층짜리 고층아파트만 짓게 되면 현집이 되더라도 경제성 때문에 향후 재건축하기도 쉽지 않고, 인구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분양 시장에도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건축공학 박사)은 "아파트 솔림 현상, 아파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사건이지만 짧게 보면 당장 5년 안으로 광주에서 벌어질 일로 판단된다. 말이 그렇지만 인구 145만 도시 광주에서 5년 내 쏟아질 아파트 물량이 5만 세대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며 "광주시가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심각한 도시 문제로 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독주택은 전남이 49% 비율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북(38%), 전북(35%) 순이었다. 서울의 경우 단독주택 비율이 4%로 가장 낮았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제외한 다세대 및 연립·다중주택 비율은 대체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국감 증인 선서 15일 오전 광주시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2019년 국회 교육위원회 호남·제주권 국공립대학·병원 국정감사에서 정병석 전남대총장이 증인들을 대표해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1반 소속 국회의원 7명은 오전 호남·제주권 국립대와 국립대병원 등 1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였으며, 오후에는 해당 지역 4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관련기사 3면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KIA 첫 외국인 감독 맷 윌리엄스

워싱턴 내셔널스 감독 등
 MLB서 9년간 지도자 생활
 2022년까지 3년간 계약

KIA 타이거즈가 첫 외국인 감독 시대를 열었다.
 KIA가 15일 맷 윌리엄스(Matthew Derrick Williams·54·사진) 오글랜드 애슬레틱스 작전 코치를 제9대 감독으로 선임했다.
 <관련기사 20면>
 KIA가 외국인 감독을 물색 중이었다는 보도(광주일보 10월9일자 2면)가 나간 뒤 7일 만이다.

윌리엄스 신임 감독은 2014~2015시즌 워싱턴 내셔널스 감독을 역임했다. 2010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코치 생활을 시작으로 오글랜드 애슬레틱스를 거쳐 메이저리그에서 9년간 지도자 생활을 했다. 2014년에는 내셔널리그 올해의 감독을 수상하며 지도력도 인정받았다. 윌리엄스 신임 감독은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호랑이 군단'을 이끌게 된다. 타이거즈는 구단 역사상 첫 외국인 감독으로 팀을 꾸리게 됐다. 타이거즈는 김동엽 초대 감독을 시작으로 김응용, 김성환, 유남호, 서정환, 조범현, 선동열, 김기태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하지만 1983년부터 2000년까지 장기 집권한 김

응용 감독을 제외하고 다른 사령탑들의 시간은 길지 않았다. 2017년 'V11'을 이끌었던 김기태 감독도 지난 5월 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자진사퇴하면서 타이거즈 사령탑의 잔혹사가 더해졌다. 2014년 10월 고향 팀의 지휘봉을 잡은 김기태 감독은 예정된 임기를 채우지 못했지만, 김응용 감독에 이어 타이거즈 역대 2위 장수 감독으로 남았다. 사령탑들의 잇따른 낙마 속에 꾸준하고 안정적인 팀을 꾸리는 데 실패한 KIA는 모기업과 '외국인 감독'에 방점을 찍고 차기 감독 영입을 준비했다. 파격 인사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현대 야구에 걸맞은 데이터 야구와 포지



선 강화로 팀 체질을 바꾸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리고 타이거즈는 빅리그에서 스타 선수로 활약했고 지도자로 경험을 쌓은 윌리엄스 감독을 내세워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

돼지열병에 조류인플루엔자까지...전남 축산농가 '초긴장'

AI 항원 천안시 울 가을 첫 검출
 전남도 특별방역대책 시행

충남 천안시에서 울 가을 처음으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면서 전남지역 축산 농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전국 최대 오리 산지에 닭 사육 농가도 전국 5번째로 많은 지역인 만큼 자칫 유입될 경우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에서다. 방역 당국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맞물려 AI에다 구제역 방역까지 진행하게 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는 15일 철새 도래시기를 앞두고

고금류 농장에 대한 예찰 강화, 종오리·육오리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장 방역 초소' 운영, 도내 철새도래지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등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올해 첫 AI H5형 항원이 최근 충남 천안시 봉강천의 야생조류 분변시료에서 검출되면서 AI 유입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른 선제적 방역관리에 나섰다. 전남도 설명이다. H5형은 닭·오리 등 금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일으키는 대표적 AI 바이러스다. 전남의 경우 영암·나주·강진 등에서 270개 농가가 500만마리의 오리를 사육,

전국 사육량(1022만 마리)의 49%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오리 산지다. 닭도 383개 농가에서 2578만마리를 사육, 전국에서 5번째로 많다. AI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발생하다 지난해 1월 이후 국내에서 검출되지 않고 있지만 철새 도래지에 맞춰 인이동경로에 위치한 중국·러시아·대만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이날 강진에서 사군 방역 담당자들과 대책회의를 열어 AI 비상 방역체계 운영 계획과 방역 대책 등을 논의했다. 우선, 철새 유입 등 병원체 유입 가능성

이 높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정해 ▲야생조류·가금 농장 예찰 강화 ▲지역 및 농가별 방역담당자 추진 ▲오리농가 농장 방역 초소 ▲전통 시장 방역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나주 지역 산란계 밀집사육지역에 대해서는 출입통제 초소를 운영하고 오리 농가 주변에 생석회를 둘러치는 차단 방역 활동도 펼친다. 가금 사육 농가들을 대상으로 '입식 전 신고제'를 추진하는 한편, AI 발생 위험이 높은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 제한을 유도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2019 한국경제신문 한국소비자만족지수 태양광 발전사업 부문 1위 기업

최고의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하십시오!

- ★ 개발행위허가 / 발전사업허가 완료
- ★ 한국전력 선로 확보 완료
- ★ 2019년 10월 현재 시공 중
- ★ 금융 컨설팅 및 솔루션 제공

상업운전 개시 임박!

- ★ 우수한 일조량(전남 신안군 일대)
- ★ 자연풍에 의한 여름철 온도 제어
- ★ 빨 잘 안 쌓이는 겨울 환경
- ★ 주변가림이 적은 지형조건

- ◆ 적용 시스템
- ★ 모듈 캐나디안솔라 385wp 단결정
- ★ 인버터 카고 100kW급
- ★ 알루미늄 구조물
- ★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 상업운전 지연 시, 지연 이자 지급

파트너사 **광주은행**

대출 최대 80% 가능
 ※ 차주 소득 금액 및 담보 상황에 따라 대출금액 조정

SUN友

(주)선우엔지니어링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57
 www.solar-sunwoo.com

방문 및 현장답사 환영

T. 031-831-9795

H. 010-4596-3982